

화순초, 가을밤 깊은 울림을 선사한 관악합주단 정기 연주회

화순초·중 관악합주단 제25회 합동 정기 연주회 개최 총 13곡 선보이며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받아

화순초등학교 관악부 학생들과 화순중학교 관악부로 구성된 관악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지난 11월 22일 오후 7시 화순 하나문화스퀘어에서 제25회 합동 정기 연주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합동 정기 연주회 공연에는 관내 기관장, 전남도의회 및 화순군의회 의원, 관악합주단 후원회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깊어가는 가을밤을 관악의 선율로 채웠다. 화순초등학교의 클라리넷 2중주와 화순중학교의 색소폰 솔로를 포함한 'SPARKS', 'CRAZY FOR CARTOONS',

'THE BEST QUEEN' 등의 13곡을 선보인 이번 무대에서는 관객의 목소리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화순초 관악부는 지난 2000년부터 화순중 관악부와 합동 정기 연주회를 매년 운영해오고 있는 관악 오케스트라로서 각종 공연에서 입증된 실력으로 명성과 전통을 뽐내고 있으며, 화순의 문화예술축제 활동에서도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부모는 "다양한 관악기의 선율을 느낄 수 있었던 다채로운 공연에, 그간 합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아이

들의 모습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화순초 관악부 지휘자 진재중 강사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된 연주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소감을 밝혔고, 화순초 정다음 교사는 "매주 매 시간마다 자신의 소리를 연습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단원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성장해준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운영실 화순초 교장은 "해가 갈수록 깊은 울림의 화음을 만들어 내는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관악부를 지원해주신 전라남도교육청 및 화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부모님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이들이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지니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초등학교 관악부는 1997년에 창



단하여 올해 제25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 외에도 5.18 추모행사 연주(화순역 광장), 현충일 추념행사 연주(화순 남산공원), 교육爰로 즐기는 행복 나눔 한마당(광덕

문화광장), 전남학교예술포럼페스티벌(GS칼텍스 예술마루)과 교내 봄·가을 등굣길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에 참여한 바가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순천대, 2023 SCNU 자산학연 성과 페스티벌

국립순천대는 최근 지역과 함께하는 지·산·학 협력 거점 글로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학 실내체육관에서 '2023 SCNU 자산학연 성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순천시,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능형 스마트농업 Grand ICT 연구센터,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창업지원단의 지원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성과 페스티벌은 학내 구성원, 중·고등학생, 지역기업과 지역민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국립순천대학교 대표 지·산·학 협력 행사로, 지난 2021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였다.

개막 행사에는 대학 주요보직자와 학장을 비롯하여 매일식품 대표이사와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혁신센터, 광양만권 HRD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산·학 협력을 기념하고 성과물을 둘러보았다.

2023 SCNU 자산학연 성과 페스티벌은 지·산·학 협력 성과를 전시하고, 학내 부서와 학과, 지역 산업의 우수한 성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학내의 구성원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9개 부스와 87개 포스터가 전시되었다.

행사장에는 △캡스톤디자인, 현장문제해결, 산학공동연구 성과 △창업 시제품 및 동아리 성과물 △학내 사업단/센터, 학과, 부서 협력 안내 △대학입시 및 학과 안내 △학생 진로 체험 및 적성검사와 취업상담 △지역기업/기관 홍보 △유망기업 투자 상담 등 여러 분야의 협력 성과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가상현실(VR) 및 드론 체험, 체험형 가상강의 등 미래 기술을 체험해 보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교육 분야 혁신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나주 다야유치원, 돌봄과 휴식이 있는 아침, 저녁 돌봄 운영

지난 3월부터 도교육청의 지원 받아 운영

나주시 다야유치원에서는 '2023 공립유치원 공모 돌봄교실'을 신청해, 편안한 쉬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돌봄교실을 3월부터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발달에 적합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은 유치원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쉬과 놀이를 경험하며 학부모님들은 안전한 환경에 믿고 맡기며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현재 아침 돌봄 17명, 저녁 돌봄 34명의 유아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아침 돌봄은

07:30~08:30, 저녁 돌봄은 방과후교정을 마친 후 유치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19:00까지 운영한다.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하였지만 편안한 유치원에 맡길 수 있어 좋았다.' '방학 뿐만 아니라 재량휴업일 등과 같이 연중무휴로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마음놓고 맡길 수 있어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야유치원은 상·하반기 만족도와 수요를 조사했더니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고 개선점



을 수용하여 보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전남교육청, 무안·영광 지역사 탐방 '남도민주평화길'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1~2일 남도민주평화길(전남 義)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 첫날은 지역사 교육자료 설명회 시간으로 전남 의(義) 역사를 담은 교육자료에 대

'의(義) 역사' 교육자료 안내·농민운동 및 향교 문화 답사

해 안내했다. 집필진들은 전남의 향교와 농민운동, 그리고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학습 자료 5권(무안, 구례, 해남, 영광, 보성)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이후 분임토의를 통해 내년도 교육자료 발간 주제와 집필진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역사 집필진으로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집필을 통해 우리 전남 義(의) 역사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2월 2일에는 올해 남도민주평화길(전남 義) 체험학습 자료집 제작 지역인 무안과 영광 답사가 진행됐다.

답방에 참여한 한 교사는 "내 고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답사 연수에 참가하게 돼 더 뜻깊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에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